

까지 감소되었다고 판단된다.

이상으로 보아 피해자는 당뇨로 인하여 저항력이 없어지므로 진폐에 수반한 폐결핵이 악화되어 전신이 극도로 쇠약해져 사망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며 아울러 당뇨병의 합병증인 신장염 또한 사망원인이 되었음이 확인됨으로 보아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피해자의 사망을 업무의 재해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 논문목록

Lilis R, Miller A, Godbold J, Chan E, Selikoff IJ. Radiographic abnormalities in asbestos insulators: Effects of duration from onset of exposure and smoking. Relationships of dyspnea with parenchymal and pleural fibrosis. *AM J Ind Med* 1991; 20:1-15

O'Leary LM, Hicks AM, Peters JM, London S. Parental occupational exposures and risk of childhood cancer: A Review. *AM J Ind Med* 1991; 20:17-35

Durand P, Begin R, Samson L, Cantin A, Masse S, Dufresne A, Perreault G, Laflamme J. Silicon carbide pneumoconiosis: A radiographic assessment. *AM J Ind Med* 1991; 20:37-47

Solomon A, Eliezer AH, Bar-Ziv J, Carel R. Inflammation of the visceral pleural, anonspecific asbestos-related pleural reaction: Chest radiograph and computed tomograph correlation. *AM J Ind Med* 1991; 20:49-55

Amandus HE, Shy C, Wing S, Blair A, Heineman EF. Silicosis and lung cancer in North Caroline dusty trades workers. *AM J Ind Med* 1991; 20:57-70

Salisbury Da, Enarson DA, Chan-Yeung M, Kennedy SM, First-aid reports of acute chlorine gassing among pulpmill workers as predictors of lung health consequences. *AM J Ind Med* 1991; 20:71-81

Hall A, Harrington M, Tar-Ching Aw. Mortality study of British pathologists. *AM J Ind Med* 1991; 20:83-89

Tvedt B, Skyberg K, Aaserud O, Hobbesland A, Mathiesen T. Brain damage caused by hydrogen sulfide: A follow-up study of six patients. *AM J Ind Med* 1991; 20:91-101

Imbriani M, Ghittori S, Zadra P, Imberti R. Biological monitoring of the occupational exposure to halothane (Fluothane) in operating room personnel. *AM J Ind Med* 1991; 20:103-112

Nathan PA, Keniston RC, Myers LD, Meadows KD. Obesity as a risk factor for slowing of sensory conduction of the median nerve in industry: A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study involving 429 workers. *J Occup Med* 1992; 34(4):379-383

Upfal M. Liver enzymes among microelectronic equipment maintenance technicians. *J Occup Med* 1992; 34(4):384-390

Andjelkovich Da, Mathew RM, Yu RC, Richardson RB, Levine RJ, Mortality of iron foundry workers. *J*

## 주요논문초록

### 『이황화탄소에 의한 뇌손상』

--- 6명의 환자에 대한 추후조사 연구

저 자 : Bjorn Tvedt, Knut skyberg, Olaf Aaserud, Anund Hobbesiand, Tove Mathiesen

출 처 : Am J Ind Med 1991;20:91-101

이황화탄소중독은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을 동반한다. 이황화탄소중독에 의해 의식을 잃은 6명의 환자를 기술하였다. 증상은 고농도의 단기간 폭로에 의한 후각소실에서 장기간 폭로로 인한 신경학적 장애 등 다양하였다. 중증의 두 환자는 지속되는 저산소증으로 폐부종으로 발전하였다. 환자들은 중독후로 부터 5년 이상 후에 재검사되었다. 이황화탄소 환경에서 5분에서 15-20분간 의식을 잃었던 5명의 환자는 신경학적, 정신신경학적 재검사시 장애가 지속되었다. 기억과 운동기능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다. 한명의 환자는 정신장애가 심하였다. 이황화탄소중독 근로자에 대한 최근의 보고는 후유증의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추후조사의 부족과 단기간 폭로군만을 대상에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 『산업장에서의 정중신경의 느린 감각신경전도 위험요인으로서의 비만』

저 자 : Peter A. Nathan, Richard C. Keniston, Lee D. Myers, Kenneth D. Meadows

출 처 : Journal of Occupational Medicine 1992; 34(4):379-383

저자는 작업장에서의 수근관증후군(carpal

tunnel syndrome)의 원인에 대한 종단연구에서 정중신경(median nerve)의 느린 감각전도의 위험요인으로서 몸무게와 body mass index(BMI)를 평가하였다. 감각전도연구는 1984년에 429명 산업장 근로자의 손 858개와 1989년에 동일한 근로자 316명의 630개의 손을 재검사하였다. 몸무게와 BMI는 maximum latency difference(XLD)와 아주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비만한 근로자들이 날씬한 근로자보다 1984년과 1989년 각각 신경전도가 비정상적인 위험성이 평균 3.5배와 4.1배 높았다. 1984년을 기초로 한 1989년 MLD의 회귀분석에서 BMI는 첫번째로 선택된 요인이었으며 다음으로 나이, 손목의 깊이/폭의 비(wrist depth/width ratio), 주로 사용하는 손(hand dominance)과 운동정도이다. 1984년의 직업관련성 요인(직업적인 손의 사용, 고용기간)은 1989년 MLD의 독립적인 유발요인이 아니었다. 이 연구결과는 직업관련성 요인이 아닌 개인적 특성이 수근관증후군과 정중신경의 느린 감각전도의 주요인임을 제시하고 있다.

### 『부모(父母)의 직업성 폭로와 소아의 암 위험에 대한 고찰』

저 자 : Lindy M. O'Leary, Anthony M. Hicks, John M. Peters, Stephanie London

출 처 : Am J Ind Med 1991:20:17-35

저자는 부모의 화학물질에의 직업적 폭로와 소아 암과의 관련성을 보기 위해 문헌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주제에 적합한 32편의 연구를 다양한 연구의 질적인 면- 표본수, 결과의 특이성, 혼란요인, 폭로의 독성, 대조군 선택 등- 을 고려하여 평가되었다. 역학적 연구결과를 평가할 때 편견의 가능한 원인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피실험자의 선택, 폭로 또는 결과의 잘못